

# “세계적 물리학자가 돼 과학 대중화 이끌고 싶어요”



## (5) 여수고 3학년 추민규 군

시 쓰기·수리탐구·과학발명품 대회 등 화려한 수상경력  
일반고 재학중이지만 물리학·아인슈타인에 관심 많아  
대학 졸업뒤 세계 유명 물리연구소서 순회 연구 하고 싶어

“제 입으로 제가 인재라고는 못하겠어요. 일반고에 다니고 너무도 부족한 제가 선발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고 그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수고 1·2학년 당시 교과성적 우수상을 휩쓸고, 수학 시 쓰기대회, 자연원리탐구대회, 수리탐구 창의력대회, 과학발명품아이디어대회 등에서 금상부터 동상까지 수상하며 다재다능함을 보여준 여수고 3학년 추민규(18)군은 여전히 자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다만 물리를 너무나 좋아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다.

“항상 발전하고자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끝까지 더러 더 부족한 건 없는지,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합니다. 이러한 저의 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물리학과에 진학해 입자물리학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군은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세계일주를 할 생각이다. 세계의 유명 물리연구소를 찾아가 1·2년 연구원으로 일하고 또 다른 국가의 연구소를 찾아가 경험을 계속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가장 먼저 갈 곳은 스위스의 CERN(Conseil Europe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 유럽입자물리연구소)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사이의 국경에 있는데요. 현재 세계 최대의 입자물리학 연구소이면서 세계 최대의 입자가속기인 대형 강입자 충돌기(LHC)를 보유하고 있고, HTML과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 WWW)의 발상지로도 유명합니다.”

세르에는 2500여 명의 연구원과 직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되고 싶다는 것이 추군의 꿈이다. 자신의 연구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과학 관련 지식과 재능을 만들 예정이다. 과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획한 목표를 이뤄내 우리나라와 전남의 발전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강상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수소경제위원회 위원 위촉

광주과학기술원(GIST) 기계공학부 강상규 교수가 최근 수소경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수소경제위원회의 위원은 각계 전문가와 관계부처 차관 등을 포함해 정의선 현대차 총괄수석 부회장, 이미경 환경재단 상임이사 등 총 11명이 추천돼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수소경제위원회는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관련 정책 조정, 국가간 협력,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이근배 전남대 정형외과 교수 대한골절학회 신임 회장 취임

전남대학교 이근배 정형외과학교실 교수가 최근 제36대 대한골절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교수는 전남대병원 정형외과과장, 의생명연구원장, 전남대학교 교수회 회장·평의원회 회장, AO 국제외상학회 한국연구위원장, 아시아태평양 족부족관절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1985년 골절연구회로 출발해 올해 35주년을 맞은 대한골절학회는 정형외과 전문의 1800여명이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정형외과 분과 최대 규모 학회로, 외상환자 및 골절환자의 치료와 기초 및 응용 연구를 통해 학문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신임회장은 “다양한 심포지엄의 활성화와 국제적 네트워킹 참여 기회 확대, 학회 저널의 질적 향상 등 교육과 연구에 중점을 두고 학회의 발전과 회원들의 친목과 화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 농협 전남본부·농가주부모임연합, 코로나 극복 봉사활동 다짐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석기·맨 왼쪽)가 육성하는 (사)농가주부모임 전남연합회는 최근 4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사·군회장 등 30여 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홀몸노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밀반찬 나

눔 활동과 가사도우미, 목욕 봉사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김석기 본부장은 “전남농협도 농가주부모임과 함께 농촌 어르신과 취약계층에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광주 동구, 문화가치대상 우수상

광주 동구(정장 임택)가 '제2회 한국문화가치대상' 우수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한국문화가치연구협회가 주관하는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지자체장의 문화공약, 정책개발, 이행사항 등을 평가해 우수 문화정책을 발굴·홍보하고자 지난해 제정됐다.

평가는 지역자원 활용 및 사업의 중요도, 효과성·창의성, 지속가능성 등 3개 항목 10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동구는 문화예술진흥 분야에서 선정됐다. 동구는 ▲씨목씨목 문화마실 투어 ▲미로센터 건립 ▲문화재 야행 동구달빛길 ▲추억의 충장축제 ▲동명동 카페거리 관광 기능강화사업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등 문화정책 사업을 진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임택 동구청장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문화 중심 동구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북구, 공직자 도서기증 챌린지

광주시 북구(정장 문인)가 공직자 대상 '도서기증 챌린지' 캠페인을 펼친다.

10월까지 구 전 부서가 도서 기증 챌린지에 참여하며 일반도서, 아동도서, 학습만화 등 최근 3년 이내의 출판 도서 1200여 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번 챌린지는 읽지 않는 책을 기증해 지역 주민들에게 도서 자원을 제공하고 오는 12월 개관 예정인 북구 양산도서관의 소장 도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북구는 기증받은 도서의 상태를 고려해 양산도서관의 장서로 비치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와는 별도로 도서 기증에 참여할 주민은 북구청 도서관과(062-410-6892)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구정장은 “이번 공직자 도서 기증 챌린지를 통해 개관 도서관의 장서 확보와 예산 절감 등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TV프로그램

7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찬란한 내 인생(재)	15 KBC 모닝와이드 35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특별기획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30 생방송 오늘 아침	35 엄마가 바람났다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기막힌 유산(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5 930 MBC 뉴스 50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저녁 같이 드실까요(재)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0 여성영웅 플러스	00 그들이 그놈이다		00 우리끼리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0 생생정보 스페셜 45 날아라 숲들이 누 비기닝(재)	00 12 MBC 뉴스 20 따라라 따라라 똑똑맨 50 뽀뽀모 도야 놀자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특목 보충설계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거북이 뉴스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즈 글로벌 동물 뉴스 50 2시 뉴스 외전	50 내고향 전파 스페셜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30 팔도밥상(재)			00 뉴스브리핑
[3]	00 TV쇼 진품명품(재)	00 KBS 뉴스타임 1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이 맛에 산다(재)	
[4]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4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00 장애인들의 날 특집 다큐 스페셜 마음으로 보는 세상	00 테마스페셜 55 닥터 365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00 5 MBC 뉴스 20 백팩터 편집판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30 오매! 전라도	00 불타는 청춘(재)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전라도 매력청	50 위험한 약속	20 찬란한 내 인생 55 MBC 뉴스데스크	00 최강 1교시(재)
[8]	30 기막힌 유산	30 노래가 좋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TV 동물농장 우린 같이 산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30 그들이 그놈이다	30 저녁 같이 드실까요?	40 쿡스킹
[10]	00 시사토론 '10' 50 더 라이브	40 옥탑방의 문제아들	50 트로트 명가 최애엔터테인먼트 스페셜	20 여름특집 불타는 청춘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12]	10 KBS결합 다큐멘터리 (아무도 미워하지 않았다)	15 통합뉴스룸 ET 45 KBS 재난방송센터(재) 55 더 라이브(재)	10 판대인턴(재)	20 나이트 라인 50 내모세모

## EBS1

07:00 꼬마버스 타요	12:30 EBS 마스터	17:45 히어로 싸울
07:15 미니특공대 슈퍼공룡파워	13:00 EBS 다크프라이	18:00 생방송 퓌퓌! 보니 하니
07:30 뽀뽀뽀 뽀로로	13:50 미래교육 플러스	19:00 형사 가제트
08:00 당동당 유치원	14:40 마사와 곰	19:30 최고! 호기심딱지
08:30 출몰! 슈퍼핑크	14:55 뽀로로와 노래해요(재)	18:45 자이언트 팽TV
08:45 방귀대장 뽀뽀이	15:00 해오와 해오	20:00 건축탐구 - 집
09:00 픽시	15:10 꼬마버스 타요(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일수록 재미있는 지구>
09:1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	15:25 레인보우 루비	21:30 한국기행 <슬기로운 여름 나기 2부 그날의 성, 정좌도>
09:30 페파 피그	15:40 뽀뽀뽀 뽀로로(재)	21:50 EBS 다크프라이
0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5:55 핫도그랑 만들어볼까요(재)	22:45 건축탐구 - 집
10:30 한국기행	16:10 픽시(재)	23:30 EBS 비즈니스 리뷰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6:25 방귀대장 뽀뽀이(재)	23:45 EBS 명강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40 당동당 유치원(재)	
12:00 EBS 정오뉴스	17:00 EBS 뉴스	
12:10 EBS 비즈니스 리뷰	17:20 개구쟁이 스머프	

##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7일(음 5월 17일 辛亥)

<p>36년생 여러 가지가 함께 올 것이니 예리한 시각과 유연한 수용 능력으로 대처하자. 48년생 지체해서는 안 된다. 60년생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 72년생 다짐해야 할 필요가 있다. 84년생 확실하다면 사전에 변경해도 무방하다. 96년생 오리무중이었던 것이 서서히 운곽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28, 78</p>	<p>42년생 기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눈여겨보아라. 54년생 비슷한 것과 같은 것은 분명히 다름을 알라. 66년생 안 일하게 대처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78년생 숨이 가쁜 하루지만 보람은 있을 것이다. 90년생 도무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02년생 너무 힘에 겨운 집이라면 내려놓아야 마땅하다. 행운의 숫자 : 37, 92</p>
<p>37년생 기대했던 제안이 들어 올 수 있을 것이다. 49년생 과감하게 전환해도 무리 없겠다. 61년생 그대로 두지 말고 속히 분할해야 한다. 73년생 신중히 실행해야만 빈틈이 생기지 않는다. 85년생 완벽을 꾀하려다가 오히려 자승자박하는 행편이 될 수 있다. 97년생 근거가 확실하다면 실행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45, 61</p>	<p>31년생 생소하거나 허황한 것일랑 접어버리고 실질적인 것에 주력하는 것이 무난하다. 43년생 여건의 변화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55년생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할 것이다. 67년생 귀중한 것이니 잘 간수해야겠다. 79년생 현재의 방향으로만 진행한다면 훌륭한 결과가 있겠다. 91년생 행편에 따르는 것이 안전한 길이다. 행운의 숫자 : 17, 86</p>
<p>38년생 순탄하다. 50년생 맘 흘러 경작하는 과정이 있어야 보람된 결실을 얻는다. 62년생 동시에 처리 될 것이니 혼동하지 않도록 잘 살펴라. 74년생 전가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86년생 배경까지 살펴보고 판단하라. 98년생 내심에서 내키지 않으면 수용할 필요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62, 69</p>	<p>32년생 확신이 없다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44년생 오해의 소지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56년생 순풍에 돛을 단다. 68년생 원만하게 진행 되리라. 80년생 변동의 폭이 상당할 것 같다. 92년생 이상이 없으니 노파심은 버리고 원하게 추진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8, 91</p>
<p>39년생 두고두고 애물단지가 되리라. 51년생 핵심 골자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63년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소신껏 행하면 그만이다. 75년생 동무 따라 강남 갈수도 있느니라. 87년생 목표점에 근접하고는 있으나 상당한 변수를 안고 있다. 99년생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숫자 : 14, 95</p>	<p>33년생 핵심 가치를 간고한다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다. 45년생 예측하기 힘든 정도로 가변적이다. 57년생 어려운 사안은 반드시 이행해야만 한다. 69년생 상호적인 관계에 신중 세라. 81년생 미루지 말고 생각났을 때 깔끔하게 마무리하자. 93년생 만사형통하는 기운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5, 67</p>
<p>40년생 내실을 기했을 때 자기 발전을 꾀하게 되는 법이다. 52년생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국면에 이른다. 64년생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76년생 비운다면 머지않아 채워질 것이다. 88년생 취하면 임자가 될 것이다. 00년생 인과관계를 따지려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조절해야만 한다. 행운의 숫자 : 36, 70</p>	<p>34년생 열심히 행하더라도 기대했던 바에 비해서 성과가 현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46년생 상서로운 기운이 싹 트게 될 것이다. 58년생 아예 버려야겠다. 70년생 많은 문제 접점이 보인다. 82년생 결과를 낙관하기에는 아직 이르니 절대로 속단이나 방심은 금물이다. 94년생 주인의 핏에 빠진다면 복잡해지면서 손해를 본다. 행운의 숫자 : 46, 80</p>
<p>41년생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발언해도 된다. 53년생 시종 일관 신중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겠다. 65년생 어떤 입장을 취하든 결과는 같다. 77년생 주도면밀한 준비와 과감한 실행이 절실한 때이다. 89년생 지나간 일이 사람들의 화제거리로 대두되나 대수롭지 않다. 01년생 막연하다면 단 처를 드러내게 된다. 행운의 숫자 : 24, 52</p>	<p>35년생 소강상태를 지나 활성화 되리라. 47년생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풍성한 성과를 거두는 날이다. 59년생 동세에 따른 파급 효과가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 71년생 따르며 때어 놓고 판단함이 정확할 것이다. 83년생 꾀해 왔던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다. 95년생 시간을 도파하면 타격을 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31, 62</p>